베이징올림픽 D-86

백지란 통신원의

지금 베이징에선

폭설·열차 충돌·대형 지진…
올림픽 잘 될까? 불안감 팽배

중국이 난리다. 올초 하늘에 쏟아진 폭설 때문에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교통이 단절되는 재해를 겪더니 지난달엔 연이어 대형 열차충돌 사고와 장바이러스가 확산돼 올림픽을 앞둔 중국정부의 체면을 구겼다. 지상의 재앙을 넘어 설상가상으로 이번엔 지하에서 터졌다. 쓰촨(四川)성의 강도 7.8 대지진. 13일 현재 사망자가 1만 명을 웃돈 것으로 전해졌다.

올림픽이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터진 이번 강진의 발생진원지인 원촨(汶川)마을에는 7만 명 이상이 행방불명 된 상태. 베이징까지 여진이 미쳐 시내 중심가 건물 속 사람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한국인들이 모여사는 베이징의 왕징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중국 당국은 인민해방군의 긴급투여, 원자바오 총리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재해 발생지역에 긴급 구호에 나섰다.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심각한 재해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극복할 자신이 있다"며 올림픽을 순조롭게 치를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내 보였다. 올림픽조직위 관계자도 올림픽 준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며 중화민족의 정신과 저력에 호소했다. 그러나 연이어 터지는 중국의 재해 소식에 '과연 올림픽에 차질이 없을까' 국제사회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계속되는 중국의 재해는 올 초 2월 50년 만의 폭설로 중남부 지역이 큰 피해를 겪으면서 시작됐다. 그 후 3월에는 티베트 독립 시위가 붉어졌고, 이를 계기로 성화봉송 과정에서 반 중국 시위가 국제적으로 번져갔다.

4월에는 약 70여 명이 목숨을 잃는 산둥성 열차 충돌사고가 발생했고 이달 초엔 유아에게 걸리는 수족구병(장 바이러스가 몸으로 침투해 급기야는 손발에 물집이 생기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병)환자가 3만 명에 이르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연초부터 평균 한 달에 한번 꼴로 잇단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남은 기간 또 무슨 사고가 어떻게 벌어질까, 심지어 올림픽 도중 테러라도 일어나는 건 아닐까, 불안해진 국내외 시선은 중국을 향하고 있다.

중국도 어쩔 수 없다.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을 선진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 싶었다. 때문에 각종 국가 인프라 개선 및 경기장 시설에 40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붓는 등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이를 계기로 국가 차원의 도약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했다.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간 티베트 사태, 성화봉송 사건과 관련한 중국의 민족주의를 맹비난의 여론으로 몰고갔던 국제사회가 이번 사태 앞에서 따듯한 손길을 보였다. 해외 국가와 국제구호단체 등 국제사회에서 재해 지원을 해주겠다고 나섰다. 유례없는 대참사로 인해 사망자가 속출한 안타까움을 표하는 네티즌들도 속속 확산되고 있다.

축복 속에 이뤄져야할 베이징 올림픽준비가 애도의 물결 속에서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젠 올림픽 테러만은 벌어지지 않길 간절히 바라는 이도 적지 않다. jrjkrccm@paran.com

김찬미 '베이징 금' 조준

〈전남여고 출신〉

김 찬 미

여자 공기소총 종합 1위
베이징올림픽 티켓 확보
사격대표 선발 6차전

김찬미(19·기업은행)와 김여울(21·화성시청)이 베이징올림픽에서 한국 첫 메달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게 됐다.

전남여고 출신 김찬미는 13일 경남 창원종합사격장에서 열린 베이징올림픽 사격대표 마지막 6차 선발전 여자부 10m 공기소총에서 본선 및 결선 합계 498.6점(394+104.6점)을 쏴 4위를 기록했다.

김찬미는 5차전에서 500.3점으로 최고 점수를 쏘는 등 결선이 포함된 5~6차전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해 종합성적 2천189.9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해 9월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단 김찬미는 12월 쿠웨이트에서 열린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면서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기대주다.

김여울도 6차 선발전에서 495.3점으로 6위를 기록하면서 종합성적 2천188.9점으로 2위에 올라 올림픽 출전의 꿈을 이뤘다.

지난 2006년 화성시청에 입단한 김여울은 1년간 부진을 겪다가 지난 해 강훈련을 소화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어 기대가 높다.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여갑순(34·대구은행)은 4차전까지 공동 선두를 달리는 등 선전했지만 최종 5~6차전에서 부진하면서 종합순위 7위(2천183.6점)로 밀려 아쉽게 16년 만의 올림픽 무대를 놓쳤다.

한편 남자부 공기소총에서는 베테랑 임영섭(35·KB국민은행)이 종합성적 3천177점으로 1위에 올랐고 이영훈(28·창원시청)은 속사권총에서 3천301.5점으로 선두에 올랐다.

또 이호림(20·한국체대)은 여자부 25m 권총에서 3천315.1점으로 안수경(3천314.2점,서울일반)의 추격을 따돌리고 1위를 지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김정행 용인대 총장
체육회장 선거 출사표

유도 국가대표 출신인 김정행(65) 용인대학교 총장이 가장 먼저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사표를 띄웠다.

체육회 부회장 겸 대한유도회장을 맡고 있는 김정행 용인대 총장은 13일 종로구 청진동 모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수 출신으로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체육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체육행정을 펼치고 싶다"며 선거에 나설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천신일 대한레슬링협회장이 지지하고 있는 이승국 한국체대 총장 겸 체육회 부회장, 이연택 전 체육회장도 조만간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 中 폭스바겐 탁구 오늘 개막

'세계 최강' 가리자
유승민-왕하오 대결 관심

'2008 베이징올림픽 시험 무대에서 기선을 제압하겠다' 남자 탁구 '간판' 유승민(삼성생명·사진)이 14~18일 중국 창춘에서 열리는 2008 폭스바겐 중국오픈에서 '숙적'인 세계 최강자 왕하오와 베이징올림픽을 3개월여 앞두고 맞붙을 전망이다.

유승민과 오상은(KT&G), 윤재영(상무), 여자 에이스 김경아, 당예서(이상 대한항공), 박미영(삼성생명) 등 올림픽 출전권을 얻은 한국 대표 선수들은 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유승민과 왕하오가 5개월 만에 재대결을 벌일지 여부.

세계랭킹 8위 유승민은 지난해 12월 그랜드파이널스 단식 16강에서 왕하오에게 1-4로 덜미를 잡히면서 상대전적 2승15패의 절대적 열세를 면하지 못했다. 유승민은 1999년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와 2004년 아테네올림픽 결승에서 왕하오를 꺾었지만 아테네올림픽 이후 4년 가까이 9차례 대결에서 한 번도 왕하오를 이겨보지 못했다.

중국 '8의 행운' 다한걸까?

올림픽 88일 앞두고 지진 발생
당국 흉흉한 민심 수습에 진땀

"왜 하필 올림픽을 88일 앞두고…."

중국 쓰촨(四川)성에 리히터 규모 7.8의 강진이 강타한 것은 지난 12일 오후 2시28분(현지시간). 이날은 정확히 베이징올림픽 88일 전이었다.

베이징올림픽은 오는 8월 8일 오후 8시 8분 8초에 개막된다. 8은 중국인의 행운의 숫자. 중국어로 '바'로 발음되는 숫자 8은 '파차이(發財 : 돈을 벌다)'의 '파(發)'와 발음이 비슷해 예로부터 재물을 숭상하는 중국인들에게 행운의 숫자로 여겨지고 있다.

8의 행운이 다한걸까. 대만 나우뉴스(Now news) 인터넷판은 지진으로 가뜩이나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지진이 발생한 날이 베이징올림픽 개막일을 딱 88일 남겨둔 날이라는 점이 중국인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13일 보도했다.

'우연'은 이뿐만 아니다. 터무니없어 보이던 지진 예측도 놀랍도록 들어맞아 불안감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다. 지진 발생 5일전인 지난 7일 지질학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인터넷 게시판에 12일 쓰촨성과 후베이(湖北)성 중부 지방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한 것. 이 글은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게시판에서 삭제됐지만 그는 네티즌들 사이에 '도사(神人)'로 떠받들어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흉흉해진 민심 수습에 전력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2일 오후 국가지진국을 인용해 이날 밤 10시 규모 3~6의 여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도, 지진에 대비하도록 했지만 중국인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심지어 지진대에 위치하지도 않은 구이저우(貴州)에서도 지진이 곧 발생할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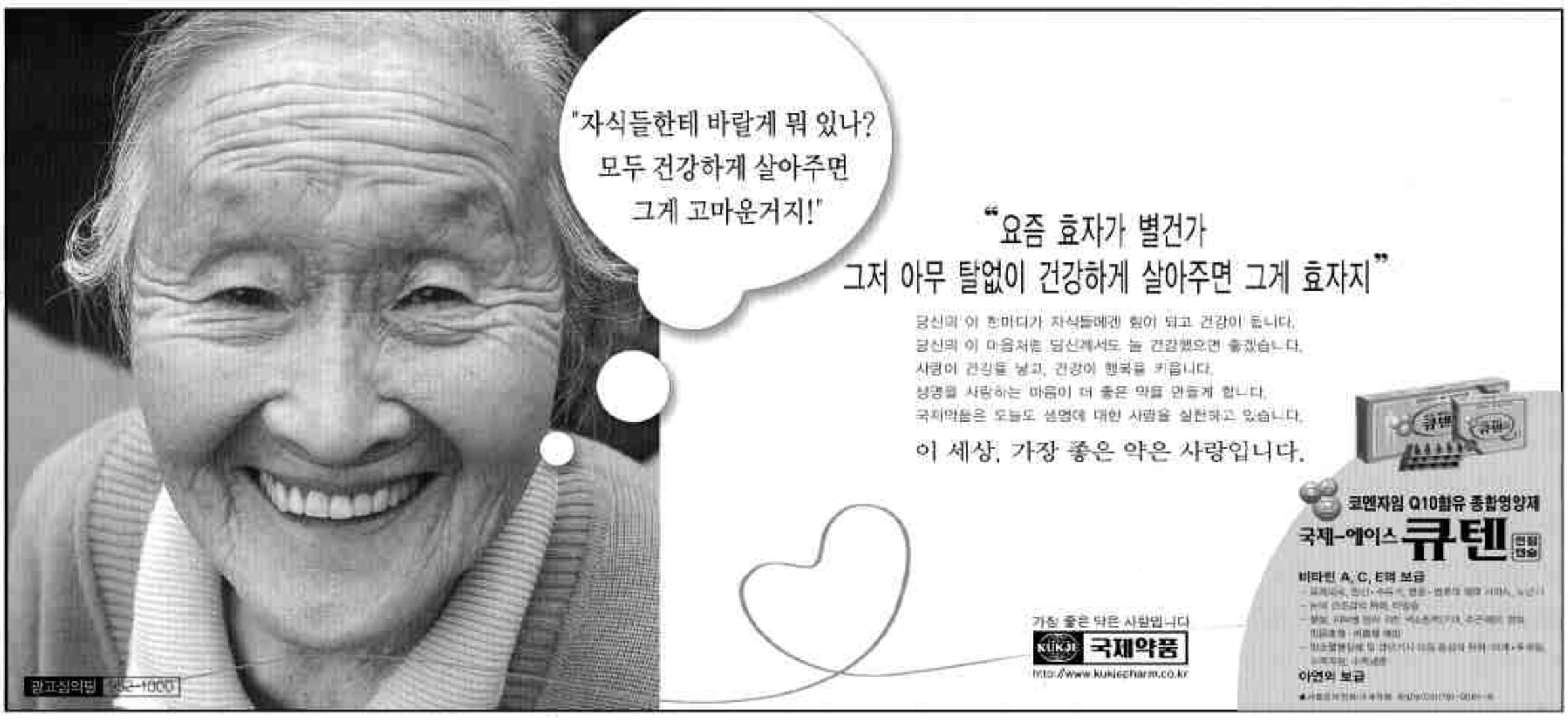
스포츠중계

14일(수)

▲2007/2008 NBA 플레이오프〈올랜도 : 디트로이트〉(08 : 00·MBC ESPN)

▲2008 메이저리그〈LA다저스 : 밀워키〉(08 : 55·Xports)

▲전국 대학야구 선수권대회 결승(13 : 50·SBS스포츠)

▲2008 프로야구〈두산 : SK〉(18 : 00·SBS스포츠)

▲2008 삼성 파브 프로야구〈LG : 우리〉(18 : 20·Xports) 〈삼성 : 롯데〉(18 : 00·KBS N SPORTS) 〈한화 : 우리〉(18 : 30·MBC ESPN)